



해외자료

현대자동차 그랜저 LPi “超저공해차”로 지정

일본 프로판 신문

관동지방 8도(都)·현(縣)·시(市)가 구성하는 8도·현·시 수뇌회의(동경도, 카나자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이타마시, 치바시)는 현대자동차-JAPAN의 그랜저 LPi를 “지정저공해차”로 지정했다.

2006년도 제3회째 심사에서는 116형식(型式)이 신청하여 모두 지정저공해차로 지정되었다. 그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랜저 LPi가 유일한 LPG자동차였다. 따라서 지정저공해차 1051형식 중 현대그랜저LPi가 LPG차로는 175형식체가 되었다. 배기가스저감 수준으로 보면 2005년도기준 6단계 중 최상위 기준인 “초”저공해차로 지정되었다. 액분사엔진 양산시스템을 갖춘 LPG차 그랜저 LPi는 12번째 형식이다.

그랜저 LPi는 지정수준을 충족하고 주행하게 되었다. 현재, 국토교통성저배출가스인정을 위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

8도·현·시 지정저공해차제도는 NOx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발족했으며 8도·시·현 수뇌회의가 배출가스 규제치를 현행의 25%이상 저감한 자동차를 8도·현·시 저공해차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